



모이자! 금속노조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강위 소식지 VOL 3

발행 : 정진음 | 발행일 : 2025.11.10.(월)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떠남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위해 경주지부에서 충남지부로 향하는 두양정공지회

- 영천 공장 매각과 충남 아산 이전, 패배가 아닌 투쟁으로 쟁취한 선택
- 고용·임금·노조·생활을 끝까지 지켜낸 금속노조의 힘
- 조합원 13명, 새 터전에서 다시 현장을 만들며 삶과 노동을 이어가다
- 낯선 곳에서도 새로운 이들과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

[경주=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소식]



일터를 잃지 않기 위한 투쟁

두양정공지회가 테슬라 단일 아이템 중심으로 생산하던 2024년, 수주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 현지 물량조달로 전환되고 신규 수주를 확보해내지 못하면서, 사측은 과도한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사측은 “영천 공장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고, 아산 공장을 무상 임대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경영 정상화안을 조합에 내놓기에 이르렀고, 지회는 공장 매각과 이전을 두고 특별교섭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① 고용 유지, ② 임금 보장, ③ 정규직 충원, ④ 생활·복지 조건 보완 등의 이전 조건을 합의로 이끌어냈다.



새로운 시작과 어려움

현재 두양정공지회 조합원 13명은 리모델링된 아파트와 투룸 등의 기숙사에 머물며 생활을 시작했다.

금속 경주지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주말마다 경주·영천 등지로 돌아가야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교섭을 통해 쟁취한 숙소와 생활 지원금, 교통비 등은 이를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 정착한 곳의 업무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다. 아산에 위치한 MSA 공장은 4개 업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기존 영천공장 보다 공간이 좁고 시설이 노후되어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더해서 테슬라 아이템 생산 중심의 공정 외에도 앞으로는 자율주행 택시 부품, 현대·기아 관련 제품군 등 신규 물량 확보할 예정이라 업무량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원래 23명이 일하던 지회는 현재, 이전에 합의한 정규직 13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회는 정규직 충원, 안전설비 보강, 복지시설 확보 등 특별교섭을 통해 합의 한 사항들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들과 이어지는 연대

하지만 아직 이행되지 못한 약속들은 경주지부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26년 부터 두양정공지회는 충남지부로 편제되기에, 앞으로 논의해나갈 조합원들의 휴게·편의 시설, 신규 충원 및 안정적 노동환경 보장 등은 앞으로 충남지부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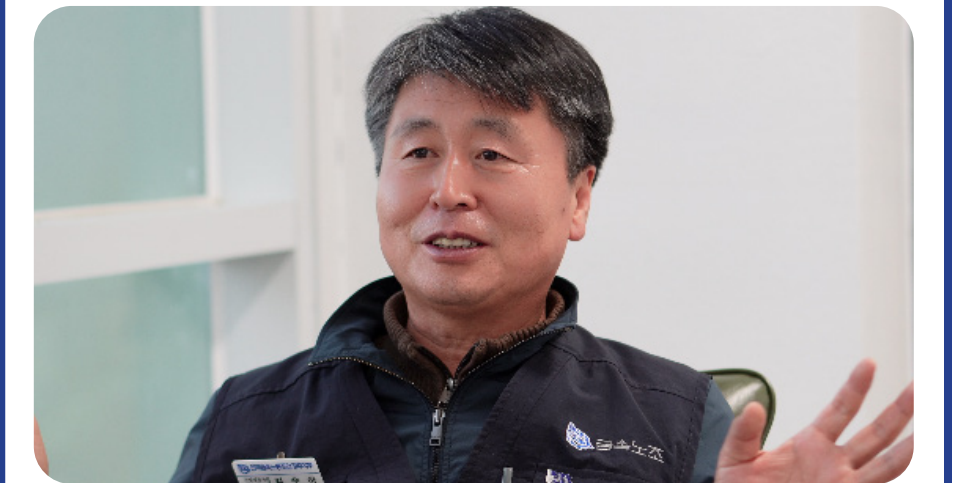
이를 위해 지회는, 경주지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남지부에서도 적극적인 교섭과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두양정공지회의 발걸음은 패배가 아닌 출발이다. 노동조합이 앞장서 지켜낸 고용과 생활권의 토대 위에서, 이제 또 하나의 현장을 만들고, 다음 싸움을 준비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서로의 투쟁과 삶을 기억하며.”



경주지부에 전하는 마음 두양정공지회 김수하 지회장



“그동안 두양정공지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준 경주지부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투쟁하고 연대했던 모든 시간이 큰 힘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더라도 여러분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주지부가 더 단단히 서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 함께 흘린 땀은 잊히지 않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곳이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서로 의지하며 잘 버텨냅시다. 마음 모아 힘을 잃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우리 자리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